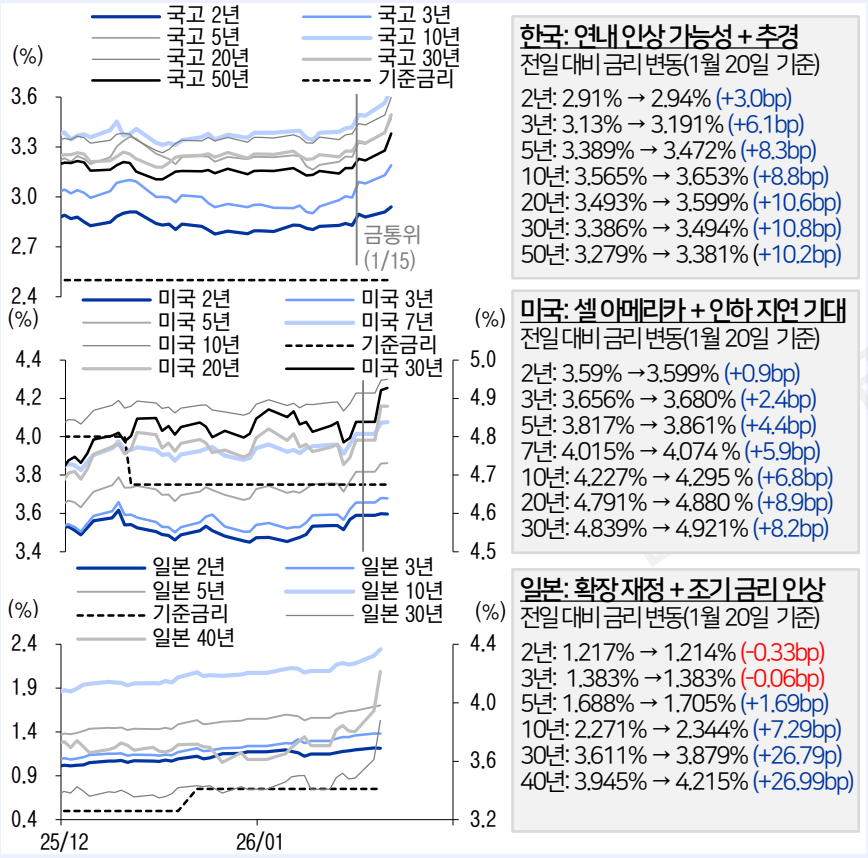
Today Chart Bond

2026. 1. 21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한국·미국·일본 금리 상승 점검



한국: 연내 인상 가능성 + 추경
전일 대비 금리 변동(1월 20일 기준)

2년: 2.91% → 2.94% (+3.0bp)
3년: 3.13% → 3.191% (+6.1bp)
5년: 3.389% → 3.472% (+8.3bp)
10년: 3.565% → 3.653% (+8.8bp)
20년: 3.493% → 3.599% (+10.6bp)
30년: 3.386% → 3.494% (+10.8bp)
50년: 3.279% → 3.381% (+10.2bp)

미국: 셀 아메리카 + 인하 지연 기대
전일 대비 금리 변동(1월 20일 기준)

2년: 3.59% →3.599% (+0.9bp)
3년: 3.656% → 3.680% (+2.4bp)
5년: 3.817% → 3.861% (+4.4bp)
7년: 4.015% → 4.074 % (+5.9bp)
10년: 4.227% → 4.295 % (+6.8bp)
20년: 4.791% → 4.880 % (+8.9bp)
30년: 4.839% → 4.921% (+8.2bp)

일본: 확장 재정 + 조기 금리 인상
전일 대비 금리 변동(1월 20일 기준)

2년: 1.217% → 1.214% (-0.33bp)
3년: 1.383% →1.383% (-0.06bp)
5년: 1.688% → 1.705% (+1.69bp)
10년: 2.271% → 2.344% (+7.29bp)
30년: 3.611% → 3.879% (+26.79p)
40년: 3.945% → 4.215% (+26.99bp)

주: 미국 20년, 30년물은 우축, 일본 30년, 40년물은 우축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상승 배경은?

● **한국: 한국은행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 추경 가능성 발언**
- 1월 금통위 이후 당분간 동결 지속 예상 기정 사실화. 더 나아가 연내 인상 관련 이창용 총재 발언 변화 등 매파 색채 짙어지며 장단기 금리 상승 촉발
-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분야 지원 강조하며 "앞으로 추가 경정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언급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유럽과의 관세 전쟁(feat. 셀아메리카)+ 추가 인하 지연 가능성**
-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군사 파견한 8개국에 보복관세 10% 부과 발표. 18일, EU 회원국 긴급 회동해 대응 방안 논의. €930억 보복관세 재가동 및 ACI 검토 보도에 EU와의 관세 전쟁 리스크 부각
-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이자 확실한 비둘기 성향인 케빈 헤싯 NEC 위원장이 백악관 잔류할 수 있음을 시사. 양호한 경제 전망도 연준 추가 인하 시점을 뒤로 지연시키는 요인

● **일본: 확장 재정 및 감세로 국채 발행 부담 +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적극 재정 필요성 거듭 강조. 19일, 중의원 해산 의사 밝혔고 2월 8일에는 조기 총선 예정. FY2026 예산안 규모,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 자민당 과반 의석 확보 시 적극 재정 기조 공고해질 것
- 18일,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제로로 하겠다 명시 + 지금 바로 논의하는 중이라 밝힘. 여야 모두 공약에 소비세 감세 포함 방안 검토 소식 전해지면서 재정 악화 우려 높아짐
-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측 강화도 금리 상승 요인. 1월 금융정책회의에서 동결 예상되나 우에다 카즈오 총재의 6월 인상설 관련 평가에 이목 집중. 적극 재정으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 고려 시 인상 시점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 존재
- 카즈오 총재가 조기 인상 가능성 부정하지 않는다면 시장 충격 요인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LS증권